

“젊음을 태워라” 내달 4~12일 세계 청년축제

광주U대회 기념...금남로서 청년이 기획한 5개 섹션 구성 1등 없는 콘서트·문화전당 1박 2일 캠핑 등 놀거리 풍성

전 세계 청년들이 광주 U대회 기간동안 금남로에서 젊음을 불태울 '2015세계청년축제'가 열린다.

광주시는 21일 “광주 U대회를 기념해 ‘캠핑은 청년들, 7월 광주로 가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7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금남로 일대에서 ‘2015 세계청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U대회 기간에 맞춰 진행될 이번 축제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모여 축제를 직접 구성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축제와 차별성을 보인다.

특히 학력·스펙 등의 비교나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으로 어려움과 고민을 쏟아

냈던 이 시대의 청년들이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하며 페스티벌을 직접 기획함에 따라 ‘청년이 만들고 청년이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든 것이 허락되며’,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콘셉트로 준비한 이번 2015 세계청년축제는 ▲홍분해도 캠핑아(공연행사) ▲막 놀아도 캠핑아(전시·체험행사) ▲말 걸어도 캠핑아(강연행사) ▲지쳤어도 캠핑아(캠핑·해변) 등 5개 섹션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홍분해도 캠핑아(공연)는 주말 대규모 공연과 주중 소·중공연으로 나눠 진행될

다.

특히 축제 시작 첫 번째 일요일인 5일 오후 7시부터 민주광장에서 펼쳐질 ‘무등-1등없는 콘서트’는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1등은 못했지만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총 출동한다.

막놀아도 캠핑아(전시·체험)는 아시아와 한국의 청년작가들이 선보이는 그래피티 현장 전시와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페인팅 체험, 유쾌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할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들인 ‘우리들의 유니버시아드 대회(유우대회)’가 준비돼 있다.

돈없어도 캠핑아(청년마켓)는 ‘청년의 부엌’이라는 테마로 개성있는 레시피를 가진 청년 셰프, 상인들이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말걸어도 캠핑아(강연)는 다양한 분야

의 연사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인생 터닝포인트를 이야기하며 삶의 가치를 공유할 계획이다.

지쳤어도 캠핑아(캠핑·해변)는 아스팔트 위의 캠핑장과 도심 속의 해변을 콘셉트로 스페크와 취업, 직장 스트레스로 지쳐있는 청년들을 위한 놀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캠핑존은 7월 4일과 11일, 토요일 밤 각각 아시아 문화전당내 태양광 광장에 80동(3인 기준) 안팎을 개장하며, 1박 2일 일정으로 어쿠스틱 밴드의 버스킹 연주, 무료 맥주파티,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해 한여름 밤 청년들을 위한 소통과 휴식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과 행사 내용은 2015세계청년축제홈페이지(www.2015wyf.co)를 참조하면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건축설계공모 투명해진다

심사위원 명단 공개

당선작 등 참여작품 전시

광주시는 건축설계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을 공개하고 참여작품을 전시하기로 했다.

건축설계 공모의 모든 과정을 자치단체 스스로 공개하는 것은 전국에서 첫 사례다.

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설계공모 방식 개선안을 발표하고, 우수한 작품 선정에 관련 규정을 추가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심사위원 명단 공개는 설계공고 시 또는 작품접수 후 당선작과 입상작, 참여 작품을 시청 1층에 전시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진행 참관하는 방법 등으로 신뢰받는 심사시스템을 마련



하기로 했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개선된 건축설계공모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홍복기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건축설비부장은 “이번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으로 심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확립하겠다”면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젊고 실력 있는 건축가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한편 우수한 작품 선정에 위해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U대회 입장권 판매 이벤트

매일 5명 추첨 금반지 증정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가 광주 U대회 개막(7월3일)을 10여일 앞두고 입장권 판매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히 일부 인기종목은 조기 매진됐으며 매진이 임박하기도 해 입장권 구매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다.

21일 광주 U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입장권 구매고객 중 매일 5명을 추첨해 금반지(1등)를 증정하고, 개최식 입장권 소지자에게 광주 시내버스 무료 승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반지 증정 이벤트는 22일부터 7월 1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당첨자는 매일 오후 5시 입장권 판매대행사인 인터파크(www.interpark.com) 이벤트 게시판을 통해 발표된다. 경품은 대회 종료 후인 7월 17일부터 발송된다.

광주시는 또 개·폐회식을 관람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개·폐회식 입장권 소지자에게 시내버스 무료 승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최식 입장권 소지자는 개최식인 7월 3일 오후 3시부터 밤 12시까지, 폐회식인 7월 14일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입장권을 제시하면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입장권은 U대회조직위 홈페이지(www.kwangju2015.kr), 콜센터(1644-9446), 무인발매기(광주시청과 5개 구청 설치), FAX(062-616-4519) 신청, 발권센터 직접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6월 23일부터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KTX 정차역인 서울역, 용산역, 광주송정역, 부산역에서도 입장권 구매가 가능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수질연구소팀이 최근 광주 U대회 선수촌에 제공되는 수돗물의 수질 상태를 검사하는 모습.

U대회 세계 최고수준 수돗물 공급한다

선수촌 등 64곳 국제공인 통과

광주시가 U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선수촌과 경기장 등에 공급되는 수돗물 수질을 중점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수촌 등에 제공되는 수돗물의 수질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21일 “선수단이 머무르는 선수촌 22개동을 포함해 경기장과 훈련장 시설 등 64곳에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해 지난 5월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서 두차례 수질 검사한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맑은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시는 U대회 기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 공급 체계를 운영하고, 수돗물 공급에 이상이 생기거나 선수촌, 경기장 등에서 선수단이 필요로 할 경우에 대비한 빗여울수(광주시 먹는 수돗물) 펌프병을 비치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수돗물의 원수인 동북호, 주암호 등은 물론, 용원 등 4개 정수장에서

생산·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해 국가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59개)과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수질기준 항목(163개)보다 많은 200개 항목을 검사하는 등 수돗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용운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최근 수질연구소 관계자와 함께 U대회 선수촌 등의 수돗물 공급 과정과 수질 상태를 점검했으며, 특히 선수단이 사용할 수돗물은 매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U대회 후원사 각종 프로모션...봄조성 앞장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글로벌프리미엄파트너(1등급), 오피셜 파트너(2등급) 후원사들이 대회 분위기 불어와 회사 이미지 상승을 위해 참가 선수 대상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광주 U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SK C&C는 각국 참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SK인재양성 가치(열정, 리더십, 도전, 혁신, 패러플레이, 용기)에 가장 부합되는 선수(팀)를 선정해 ‘SK 행복 장학금’을 수여한다.

기아자동차는 국내에 재(휴)학 중인 대학생 및 주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유망단’을 구성해 야구, 리듬체조, 배드민턴 등 주요 종목의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을 응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세계 각국의 선수단의 하늘길을 책임질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6일까지 고객을 대상으로 아시아나클럽 모바일 회원 가입시 추첨을 통해 U대회 개최식 주요 경기 입장권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광주 U대회 선수촌 국제구역 국기광장 내에 삼성전자 체험관을 설치·운영하고

선수들간 서로 격려 및 응원하는 문화를 독려하는 취지의 ‘You Light Me Up’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체험관은 광주U대회에 참가하는 세계 대학생 선수들의 휴식 및 놀이 공간으로, 캠페인 참여 이외에도 게임체험, 유니폼 트레이딩 등의 이벤트가 준비되고 있다.

모든 마실거리 제공을 맡은 롯데칠성음료는 행사상품 구매시 스크래치 카드를 지급해 선봉기, 축구·농구 관련권 등을 제공한다.

특히 롯데칠성음료는 유니버시아드 기념 직원복을 제작해 착용하고 광주 U대회 알람이로 나선다.

SK 텔레콤과 블랙야크도 주경기장 앞 마켓스트리트에 홍보관을 마련하는 등 대회 기간 다양한 이벤트를 연다.

SK 텔레콤은 미래 통신 기술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T.um관’을 운영, 한국의 앞선 ICT 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블랙야크는 대회기간동안 쿼터타임, 스마트 웨어 심박 측정 등 풍성한 참여 행사를 연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요양(병)원, 전원주택지, 펜션단지, 연수원, 최적지

투자강력 추천!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 (구, 송학랜드)
- 대지 9168평, 건물 882평, 계획관리지역,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건너편 전원주택단지, 담양리조트 1분거리
금성 펜션단지 1분거리, 금성산성/추월산/강천산/대나무 박물관/메타세쿼이아길 근접
- 현재 박물관, 펜션, 식당, 별장으로 운영 중
- 차후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정도 상승 가능
군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요양(병)원, 연수원, 별장, 수련원, 종교시설, 전원주택지
펜션단지 등등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감정가 28억 / 시세 30억 정도
매매 21억(법인체 인수 가능)

공동투자 하실 분도 모심!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전원주택단지, 담양댐, 한마음연수원, 담양리조트, 금성펜션단지

← 금성 → 금과 →